

文化觀光으로의 轉換을 위한 方向摸索

— 人文資源 開發을 中心으로 —

李 善 文*

目 次

- | |
|-----------------------|
| I. 序 論 |
| II. 濟州의 觀光現況 |
| 1. 世界의 觀光推移 |
| 2. 濟州觀光의 오늘 |
| III. 文化觀光으로의 轉換方案 |
| 1. 文化觀光의 受容與件 |
| 2. 先進觀光地의 事例 |
| 3. 人文資源의 開發方案 |
| IV. 文化觀光으로의 轉換을 위한 提言 |
| 1. 藝術行政 |
| 2. 文化空間의 擴充 |
| 3. 各種 研究所의 新設 |
| V. 結 論 |

I. 序 論

관광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독일인 학자 볼만(A. Bormann)이 정의한 '기본전환, 위락, 직무 등의 목적을 위하여 定住地를 한 때 떠나는 여행의 총체적인 개념'이 무난할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이러한 관광이 인류가 생겨나면서 부터 시작됐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현대적 의미의 관광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일상적 의미의 관광이 아닌가 한다. 관광이 일상화 되면서 관광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각종 서비스와 편의가 제공되는 관광산업이란 용어가 생겨나기

* 인문대학 음악학과(Dept. of Music,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시작했는가 하면 각 국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本道の 경우도 1955년 '관광안내소'가 처음 등장하면서 관광산업이 시작된 이래 항공, 선박편의 발달에 따라 관광시대가 막을 열었는데 1966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五賢高等學校에 관광과가 신설됐는가 하면 관광산업을 첫째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 이를 시행하라는 행정지시가 청와대로부터 직접 떨어지는등 관광사업은 濟州발전의 필수불가결 요소로 자리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1975년 부터 구체화 되기 시작한 정부주도의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 1·2次濟州道綜合開發計劃 등 관광산업은 이제 그간에 제기된 여러 부정적 요소를 且置하고서라도 觀光立道를 標榜한 濟州道로서는 산업의 우선 순위로 꼽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최우선 순위의 관광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濟州관광이 수요에 있어 停滯性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잇따른 전문가들의 보고는 그간의 관광정책을 되돌아 보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¹⁾

이에 대해 획일적인 관광스타일에서 벗어난 내국인 관광동향의 分節化, 관광수요 豫備群의 한계, 관광행정 및 서비스시스템의 不在 등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으며 그 底邊에는 생활이 풍족해지고 관광여건이 개선되면서 관광객들이 새로운 附加價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기존의 관광행태로는 濟州관광은 이미 한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觀光推移의 변화에 따른 對應戰略이 다각도로 구상돼야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II. 濟州觀光의 現況

1. 世界의 觀光推移

관광을 통해 관광객이 만족을 얻는 요인에 대해 학자들은 관광지의 物理的·生物的 특징, 관리의 유형과 수준, 이용자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들고 있으며 맥킨타쉬(Mcintosh)의 경우 문화는 관광객에게 최대의 매력을 준다는 전제조건이라 다음 15가지로 문화관광의 요소를 나누고 있다.²⁾

유화·조각·스케치 등의 미술을 비롯 하와이·스페인 등에서 가장 흥미롭게 어필되고 있는 음악, 민속춤, 공연, 산업투어로 대변되는 산업, 쇼핑센터 등의 사업, 농업, 학술회의 등의 교육, 문학, 언어, 과학, 정부, 종교, 음식, 역사 등이 그것이다.

1) 觀光研究社, 「濟州發展研究」3집, 觀光研究社, 1992, p130. 현재 濟州관광의 정체성에 대해 일시적인 경기침체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관광정책에 원인이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수교, 북한 개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관광정책의 전환없이 濟州관광은 정체성을 거듭할 뿐이다.

2) 孫大鉉 「觀光論」, 日新社, p. 197.

이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문화적 요소는 다양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관광적 매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附加價値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요소는 각 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상품전쟁에서 이른바 '문화전쟁'으로까지 深化되게 하는데 음악의 경우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제, 연극에서의 에던버러축제,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미술에서의 각종 비엔날레, 세계 여러 곳에서 펼쳐지는 영화제 등 각 국은 관광과 연결된 고도의 문화전쟁을 치름으로써 세계는 하나의 文化角逐場으로 전환되고 있다.³⁾

세계가 문화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것은 소비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다 과거 物質的, 量的으로 충족되던 생활결핍에서 벗어나 心理的, 文化的 욕구를 추구하는 생활양식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濟州관광에서도 停滯性이 최근들어 급격히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濟州관광시장의 主 소비자인 내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라 差別化 관광상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人文資源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이다. 단순히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광소비자의 문화적 갈증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전략이 요구된다.

2. 濟州觀光의 오늘

90년을 기준으로한 來道관광객은 내국인 2백75만7천명, 외국인 23만5천명으로 3백만 가까이 濟州를 찾았으나 관광객의 90%이상을 내국인이 占有하고 있으며 개인출장 등 구분이 곤란한 관광객 구성비 50%를 제외하고는 일반단체 19%, 신혼부부 16% 등 단체관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⁴⁾

이들로부터 벌어들인 관광수입은 1인당 내국인 10여만원, 외국인 40여만원에 그침으로써 관광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유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급 관광객의 유치, 특히 외국인의 유치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세계 각 국이 문화이벤트 기획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비해 濟州관광은 自然資源에 의존함으로써 停滯性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의 보고와 脈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관광정책의 不在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第2次濟州道綜合開發計劃案에 따르면 지난 85년 부터 9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실시된 제1차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관광개발 부문은 관광객의 초과유치, 국제항공노선 확장 등을 성과로 꼽았으나 숙박시설·관광위락시설 및 지구개발 부진, 민속문화의 관광자원화 미흡 등을

3) 孫大鉉, 前揭書참조. 문화이벤트를 통해 문화전쟁을 치루고 있는 곳은 아시아권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는데 가까운 홍콩의 경우 매해 아주예술제를 개최,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홍콩 영화제, 국제예술카니발, 무용제 등이 제절별로 치뤄지는데 홍콩정부의 주도아래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4) 濟州道, 「濟州道誌」 통권90호, 濟州道, 1992, p. 99.

脆弱點으로 들고 있다.⁵⁾ 또 보여주는 관광에 주력함으로써 일부자연의 훼손과 再訪問 매력도의 低下,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체재일수의 증가유도 미흡, 다양한 역사유적과 민속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문화재와 유적의 방치, 전통문화행사 및 無形文化財 프로그램 미비와 행사를 위한 시설 부족 등 그간의 관광자원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돼 온 관광정책은 관광개발의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政策代案의 不在에 따른 즉흥적이고 수정보완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개발과정에 있어서도 濟州道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는데는 목적을 같이하고 있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자연자원의 활용방안에 그치고 있을 뿐 인문자원의 개발에 대해서는 試案조차 수립되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러한 관광정책의 近視眼性은 실제 濟州관광 行態에서도 드러나는데 패키지상품을 통해 濟州 관광에 나선 관광객들은 코스선택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관광일정에 쫓기게 된다. 해당여행사의 커미션 여하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는가 하면 관광자원의 한계, 특히 낮관광에 그쳐 '全日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방문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문화이벤트를 찾아 세계 각국을 옮겨 다니는 외국관광객의 유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밤관광의 경우 각종 유흥업소의 急增에 따른 건전한 밤문화 조성론이 대두될 정도로 위험수위에 다달았다는 지적이다. 一例로 濟州市내에 들어선 유흥업소만 해도 최근들어 급증, 3백여곳이 盛業하면서 新濟州 일대가 유흥가로 轉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자인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마저 뚜렷이 밤관광을 즐길만한 프로그램의 不在로 인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따라 각종 청소년 범죄의 증가를 비롯 정신문화의 不在, 국적불명의 문화 氾濫까지 빚어지고 있다.

하와이나 라스베이거스, 파리 등 해외유명관광지의 경우 낮관광 보다 밤관광이 더 볼거리가 있고 특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와이 폴리네시안 문화센터를 비롯 파리 나이트루어 등 환상적인 민속공연과 버라이어티쇼로 그 지역에 대해 깊은 인상을 심게하는 사례들은 제주관광의 行態를 살피는데 있어 他山之石으로 삼을만 하다.⁶⁾

건전한 밤문화 조성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의 밤관광 유치틀 위해 인문자원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관광정책의 不在에 따른 踏步 상태의 濟州관광에 대해 관광정책의 변화와 함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開陳되고 있다.

Ⅲ. 文化觀光으로의 轉換方案

1. 文化觀光의 受容與件

5) 濟州道, 「第2次濟州道綜合開發計劃案」, 濟州道, 1991, 참조.

6) 동아일보, 1991. 11. 6, 「濟州 건전한 밤문화 아쉽다」. 건전한 밤문화 조성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된 문제가 아니다. 밤觀光文化和 맞물림으로써 심각성을 더해 주고있다.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여건이 개선돼 왔으며 이는 지방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그동안 중앙 指向의 문화, 문화행정 때문에 지방의 문화는 소외되기 일췌였고 문화의 지역적 偏重을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문화행사 舉辦가 중앙에 집중돼 왔고 지방은 문화의 邊方으로, 소외지역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소외감은 80년대 이후 지역문화에 인식을 둔 지방예술계에 의해 극복돼 왔고 각 지방은 特質의 지역문화 創出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장 뛰어나고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서울도 지방의 한부분이라는 前提아래 각 지방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지방문화를 標榜하기에 이르렀는데 本道의 경우도 70, 80년대를 거치면서 터 잡기 시작한 지방문화는 문화 享有人口를 늘려왔다. 특히 각종 문화공간의 신설은 문화행사의 활성화와 문화인구의 底邊化를 가져왔는데 문예회관의 年 관람객 수에서도 찾을 수 있다. 91년을 기준으로 대극장의 경우 음악공연 71건, 연극 21, 무용 12, 국악 5, 기타 23건 등 1백65일 공연에 10만8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소극장의 경우 음악 23건, 연극 22, 국악 1, 기타 21건 등 공연일수 1백일에 모두 1만5천9백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시민회관, 학생회관 등 기존문화공간을 비롯 동아생명문화센터, 세종미술관 등 민간 문화공간 신설에 따른 각종 문화공간의 문화행사에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지역적 文化受容 능력을 가늠케 하는 것이며 굳이 외형적 수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생활여건의 개선에 따른 도민의 文化享有力이 대도시 못지않은 발전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체 성공의 關鍵은 문화에 있으며 관광에서의 성공은 문화관광이 關鍵이라는 認知하에 도민 스스로가 관광에 있어 새로운 附加價値를 요구하는 만큼 문화관광의 受用與件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先進觀光地의 事例

문화관광은 다양한 樣相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크게 人文資源의 개발측면과 既存資源 재활용측면 등 두 가지로 나뉘 世界는 自國을 文化角逐場化하고 있다.

고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비롯 人文資源의 개발을 통해 自國의 품위를 높임은 물론 이를 관광상품으로까지 連繫시킴으로써 고급관광지라는 이미지를 構築해 나가고 있는 관광선진국이 前者의 例라면 고유의 民俗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 발리를 비롯한 後者의 例에 속한다.

人文資源의 개발측면에서 볼 때 선진 각 국에서는 文化藝術을 상품으로 내걸어 自國民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세계인의 이목을 끌면서 관광상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이벤트(EVENT)는 도처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몇가지 例를들면 다음과 같다.⁷⁾

7) 禮音, 月刊 「객석」 합본호, 1984~1986, 참조. 문화이벤트는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 에딘버러 스티벌(Edinburgh Festival)

스코틀랜드의 수도에서 매년 늦여름에 3주간 열리는 축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프린즈(Fringe) 페스티벌, 밀리터리 타투(Military Tattoo),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TV 페스티벌 등이 개최되는데 이 기간동안 3~4백만명의 관광객이 세계 도처에서 모여든다. 프린즈 페스티벌에서 공연되는 연극, 쇼, 뮤지컬 등 공연 숫자만해도 8백여회가 넘는다.

△ 아비뇽 페스티벌(Avignon Festival)

연극과 무용이 중심이 돼 7월 초부터 약 한달간 펼쳐지는 행사. 이 페스티벌에는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市에서 조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프 아비뇽(Off-Avignon)이라고 해서 市에서 인정하지 않는 행사. 그러나 두 개의 아비뇽 페스티벌에도 속하지 않는 스트리트 페스티벌이 있다. 아무데서나 공연을 시작하면 관객이 있고 즉흥공연이 펼쳐지는 등 축제의 거리화한다.

△ 탱글우드 뮤직 페스티벌(Tanglewood Music Festival)

매해 여름 보스톤심퍼니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1937년 부터 시작됐다. 매년 25만명이 탱글우드에서 여름을 보내는데 총 9주의 음악회가 음악홀과 드넓은 야외 잔디음악당에서 펼쳐진다. 낮 연주와 밤연주 프로그램으로 구성, 낮에는 뜨거운 태양아래 파라솔을 펴고 선텐을 즐기며 음악을 감상하고 밤에는 어둠속에서 별빛과 촛불의 낭만과 함께 음악을 즐긴다.

이밖에 既存資源의 재활용의 경우 민속을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내세움으로써 自國의 이미지를 심어나가는 사례를 발리, 하와이 등 到處에서 찾을 수 있다. 각 지역의 독특한 민속춤을 비롯 민속음악 등 각 국은 이의 관광자원을 위한 상설공연장 마련에서 부터 프로그램개발,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민속자원의 활용으로 세계 관광시장에 승부를 걸고 있다.

3. 人文資源의 開發方案

가. 文化이벤트(Event)

관광에 있어서 관광체험의 質은 관광의 매력성과 상호 연관을 갖는다.⁸⁾ 良質의 관광체험은 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체험의 固有性和 장기적으로 문화의 생명력을 지키는 일이 필요한데 앞서 언급한 각종 페스티벌을 비롯한 문화이벤트는 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참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本道는 독특한 민속자원과 天惠의 자연조건이 뒷받침되고 있어 문화전쟁의 성공가능성을 타진해 하는데 민속과 어우러진 프로그램의 기획과 더불어 탱글우드 뮤직 페스티벌처럼 아름다운 경

척도가 되기도 한다. 특히 관광선진국에서는 自國에 대한 이미지 창출을 위해 문화이벤트를 끊임 없이 개발, 관광자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8) 孫大鉉, 前掲書참조.

관 속에 펼쳐지는 문화 이벤트 등 兩者 모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맥킨타쉬의 이론에 따르면 음악의 경우 각종 콘서트와 야외음악당의 프로그램, 디스크 및 테잎의 판매 등으로 문화관광적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本道의 경우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한 민요를 비롯 오케스트라 등의 야외무대를 적합한 문화이벤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독특한 민속문화가 생활풍습, 언어, 민요, 등 일상생활에 殘存해 있는 本道로서는 ‘民俗’으로서 세계관광시장에 승부를 걸고 있는 餘他 나라의 모델을 연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濟州道立民俗藝術團 및 민속기능보유자들의 상설공연장 마련 등 學道的 차원에서의 민속의 발굴과 육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준비가 소홀히 이루어졌던 것은 민속의 寶庫라는 美名에 걸맞지않게 死藏돼 가고 있는 민속문화의 현주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역문화의 현장을 보여주고 集大成할 수 있는 관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을뿐 아니라 민속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연구소의 不在, 보존을 위한 정책의 貧困, 무엇보다 과거의 민속문화가 오늘에 이르러 새롭게 照明되고 再現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의 문화정책은 특수성의 요구에는 상관없이 일반행정의 틀러리에 그쳐왔다.

一 예로 국내에는 전체적으로 3백여개가 넘는 郷土祝祭가 있고 道內에도 한라문화제, 유채꽃큰잔치 등 향토축제로 분류될 만한 축제가 있지만 도민의 축제로서 昇華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 흡수에도 미흡한 실정이다.¹⁰⁾ 또 30여회에 이르는 한라문화제를 통해 발굴, 재현된 민요, 민속놀이 등 민속자료들도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침으로써 애써 발굴된 민속자료마저 死藏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화관광의 到來를 위해서는 당국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데 민속자원의 활용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게 前述한 야외공간의 활용과 이에따른 각종 이벤트의 구상이다.

本道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각종 콘서트 등 문화이벤트의 適所로도 일컬어진다. 여러논의 끝에 탐동 야외음악당 건립이 구체화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문화공간은 이곳에서 몇회의 공연이 치뤄질까라는 수치상 계산에 앞서 도민에게는 상징적 공간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꼭 들러볼만한 코스로 인식될 수 있는 意味性에 중점이 있다. 야외무대에서 자연스런 문화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도민의 文化享有는 물론 탕글우드 같은 외국의 모델을 거론치 않더라도 해변음악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의 발휘와 함께 고급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기대된다.

9) 上掲書참조. 本道의 경우 도 전역에서 실내의 문화 이벤트를 기획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비단 관광문화적차원에서 뿐 아니라 문화환경적 차원에서 중요시되는데 문제는 도내에 전문적인 이벤트대행회사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고작 80년대 들어서야 이벤트 기획에 눈을 뜬 상태로 전반적인 미미함을 보이고 있으나 本道의 경우 이벤트 기획에 따른 재정문제를 감안한다면 당국이나 호텔등 관련업체, 기업체등을 중심으로 구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문예진흥원, 「문예연감」, 문예진흥원, 1992, 참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축제문화가 미흡하다. 바람축제, 눈축제 등 자그마한 것에서 부터 이름을 붙이고 문화화, 관광화해 나가는 이웃 일본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이밖에 최근들어 도내 특급호텔에서 마련하고 있는 서머뮤직페스티벌, 외국성악가초청연주회, 야외연주회 등도 활성화 여하에 따라 이벤트에 한 몫하리라 기대된다.

현대는 모든 경쟁에 있어 이벤트시대라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企劃戰爭을 치열히 벌이고 있는데 상설무대를 통한 민속공연, 클래식·팝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음악공연, 그리고 계절별, 행사별, 장소별 이동이 가능한 이벤트 등 비교적 다양하게 문화관광으로의 전환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나. 水邊(Water front) 開發

지형상 바다로 둘러싸인 本道로서는 해외의 水邊開發 사례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육지와 水面의 경계를 이룸으로써 陸上활동은 물론 바다나 호수를 이용한 水上활동, 水邊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開發資源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歐美 각 국에서도 이 水邊開發에 눈을 돌리면서 새로운 개발과 함께 기존 造成地의 정비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존 水邊에 들어선 역사적 장소를 비롯한 특이한 환경양식을 유지하면서 내부용도를 변경하는 방식, 港灣기능의 頹落에 따른 재개발 방식, 그간 불모지로 남아있던 水邊공터지역 개발 방식 등이 그것인데 다음의 대표적 사례에서 해외 水邊開發의 樣態를 찾을 수 있다.¹¹⁾

△ Seaside Florida

미국 플로리다주 멕시코만에 위치해 있으며 모래언덕과 초목이 자라는 해변. 컨벤션센터와 콘도미니엄, 주거개발이 30~40년대 전통적 도시형태의 재창조를 주제로 99년 완공예정을 목표로 진행중. 여름영화시리즈제작, 가을실내음악시리즈, 거리의 무용행사 등 각종 이벤트 기획을 통해 최근들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 Santa Monica Pier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위치. 5천6백30평규모. 1983년 파괴된 부두의 일부를 87년 재개발. 慰樂港口開發을 주제로 상업지역을 복구했으며 음식점을 비롯한 레크리에이션시설 도입, 무용행사, 연날리기 축제를 포함해서 연속적인 이벤트 개최.

△ Darling Harbor

과거 호주 시드니 산업,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港灣의 老朽에 따라 호주 건국 2백주년 기념사업으로 대규모 水邊재개발 진행. 특히 이곳의 관문에 들어선 오페라하우스는 세계적 명소로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곳이며 전문상가와 식당가, 컨벤션센터, 시드니수족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전시장 등 이곳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 및 이벤트가 기획되고 있다.

11) 문예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도시문화환경개선방안연구」,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보고서, 1992, p.134. 이 단락을 기술함에 있어 同자료가 많은 참조가 됨을 밝힘.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水邊개발은 바다, 혹은 호수라는 자연환경위에 人工이 加味된 개발형태로 本道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해변가 전역을 개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베니스나 시드니와 같은 유서 깊은 항구가 없는 本道로서는 서귀항 등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한 기존항구의 재개발이라든지 바다와 인접한 탐동야외음악당을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

탐동매립과 함께 등장한 야외음악당은 바다와 도심지를 잇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상징성과 함께 훌륭한 야외무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92년 8월 대한민국관악제 야외 행사와 同年10월 한라문화제의 서장을 여는 해변음악제가 이곳 탐동광장에서 처음으로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야외음악당의 활용여하에 따라 각종 이벤트도 구상될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本道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이벤트는 이러한 水邊開發이 전제된다면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탐동매립지조성계획 당시부터 水邊公園으로의 조성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점이다.

다. 컨벤션(Convention) 산업의 유치

관광산업의 꽃이라 불리우는 컨벤션은 최근들어 관광의 寵兒로서 附加價值가 높은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 會議産業에 막대한 투자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高價의 관광상품으로 會議를 비롯 학술세미나, 박람회, 전시회, 문화예술, 스포츠행사 등 범위가 다양할 뿐 아니라 本道로서는 건전 문화관광과 고급관광객을 유치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관광산업으로의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¹²⁾

현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회의산업은 91년의 경우 3백50건, 4만1천명으로 회의와 휴양을 겸한 경제단체, 기업체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관광객에 비해 관광경비의 1.5배 지출과 3박4일 이상의 장기체류 등으로 앞으로 각광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국내회의 유치에 비해 국제회의 유치는 이를 위한 국제회의장을 비롯 대규모숙박시설, 전문인력, 국제항공편 등이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당국과 관광업계의 적극적인 補完對策이 요구된다.

90년을 기준으로 5개국 3백명 이상 참가규모의 국제회의는 모두 8천5백96회가 열렸는데 이 중 미국이 8백94회로 가장 많고 프랑스, 영국이 각각 7백회 이상, 일본 2백66회, 우리나라는 70회로 세계 27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會議産業의 각광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컨벤션센터의 建立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컨벤션센터의 국가별 보유현황을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1백68개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50개, 영국 30개, 일본

12) 제주 MBC일요리포트, 1992, 「새로운 각광-회의산업」. 이 단락을 기술함에 있어 同자료가 많은 참조가 있음을 밝힘. 회의산업에 대한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本道가 휴양지로서의 이미지를 심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컨벤션산업의 유치이다. 근래의 회의산업은 휴양과 겸해서 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상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할 분야이기도 하다.

19개, 우리나라가 서울·경주 등에 5개를 갖고 있을 뿐이다. 운영면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담당부서나 非營利法人이 운영을 맡고 호텔, 요식업자들이 수입 일부를 컨벤션센터 운영 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상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컨벤션산업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각종 金融稅制의 지원을 통해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奮勵, 전국 32개 도시를 컨벤션시티로 지정하는 한편 담당기구를 지방정부에 설치, 컨벤션센터의 신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가 20억\$의 예산으로 국제회의전시장을 94년 목표로 건설중이며 태국이 UN산하기구 회의 유치에 UN회의장을 3천8백만\$를 들여 건설하는 등 동남아 국가에 이르기까지 국제회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5개국 동시동역시설에 9백명 수용이 가능한 제주신라를 비롯 그랜드(5백명수용) 하얏트(2백80명수용) 정도가 국제회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 각 특급 호텔에서라도 국제회의장 新設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두 소규모 회의장으로서 1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유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회의가 세계 각국의 지도급 인사가 참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多機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의와 휴양을 겸한 컨벤션 산업의 특성상 가장 적합한 지역의 하나로 꼽히는 本道로서는 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회의산업의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의산업의 활성화는 관련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一例로 92년7월 '음악춘추사' 주최의 음악관련 세미나, 워크샵, 연주회가 서귀포시 소재 유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리기도 했는데 다방면의 국내, 국제회의 유치방안이 당국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모색돼야 한다.

라. 文化環境 造成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은 산업우선주의 정책에 밀려 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本道의 경우도 외형적인 도시형태는 漸進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도시의 특성을 대변할 만한 環境 造成에는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도시의 개성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작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로 문화적 정체성(Identity) 확립이 필요하다. 즉, 도시의 환경을 문화적 기반으로 다짐으로써 도시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소속감과 自矜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데는 크게 도시의 空間構造에 대해 장기적이고 廣域的인 구조개편과 어느 특정지역을 改編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문가들은 나누고 있다.¹³⁾

本道の 경우 관광지라는 立地條件을 감안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道 전체적인 차원의 廣域的 구조개편과 함께 특정지역의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 개편에 있어서는 文化部의 '문화부문 계획안'에 따라 문화환경 개선차원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이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本道の 관덕공원지구 일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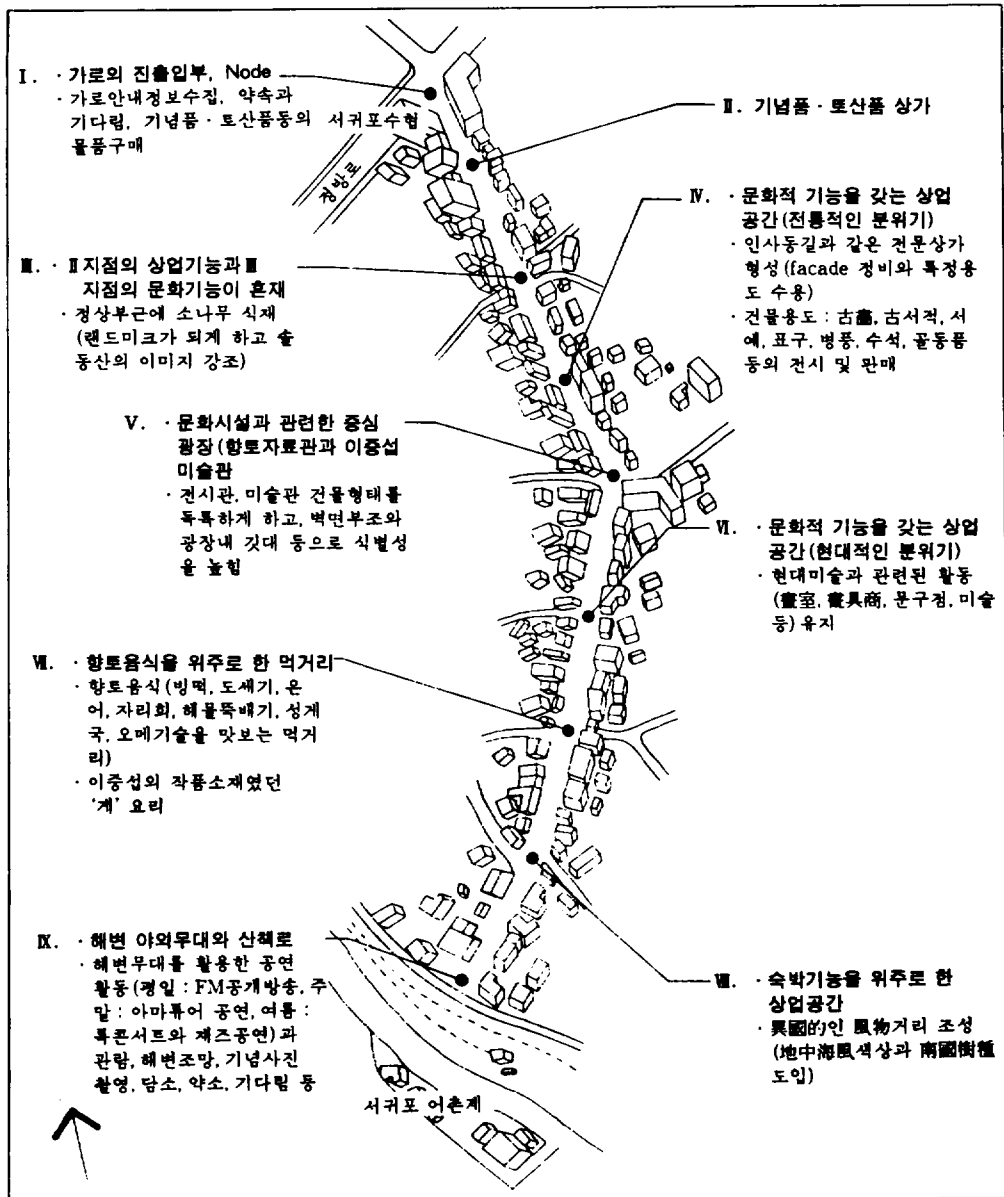
'문화의 거리'는 이미 선진 각국에서 猛威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유형은 크게 ①街路形 과 ②

13) 문예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上揭書. 이 단락을 기술함에 있어 同자료가 많은 참조가 됐음을 밝힘.

센터(center)形으로 나눌 수 있다.

① 街路形거리리는 나라마다 전통적인 街路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파리의 몽마르뜨거리,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지구, 비엔나의 음악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유명한 음악당,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활동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화방, 서점, 골동품점, 음식점, 기념품점이 들어서고 이 거리가 문화예술가, 일반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모으면서 점차 문화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센터형 거리는 하나의 團地형태로 문화시설이 고루 갖추어진 경우로서 각종 문화시설과 활



서취포 예술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 例示圖

동이 團地內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성된 거리를 말하는데 런던의 바비칸센터, 미국 발티모어의 찰스센터, 파리의 뽀뽀두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의 거리 조성 방법에는 계획적인 團地內에 문화시설을 들어서게한 후 공연, 전시, 등 문화활동을 일으키게 하는 新開發方式과 기존 시가지에 약간의 수정과 변화를 주어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現地改良方式이 있는데 造成時에는 문화적 독자성, 가로환경의 質的 수준, 행사 및 축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기준아래 도내에서 비교적 적합한 조성구간을 서귀포시 솔동산 일대로 정하고 조성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현재 서귀포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징이 없는 도시라는 전제아래 자연 및 인문자원인 선창가와 도시의 家口를 직접적으로 連繫하는 조성안으로 다음의 例示圖를 통해 모범적인 조성방안을 찾을 수 있다.¹⁴⁾

例示圖에서 보듯이 도내 문화의 거리는 기존 도시에 수정과 보완을 주는 방식과 함께 새로운 宅地개발지 등에 문화공간 확보차원에서 조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문화 매개체들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문화적 기반, 정신적 환경요소를 다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濟州市內의 경우 문예회관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신산공원지구에 센터형 문화의 거리 조성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기존 문화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다 주변환경이 문화의 거리로는 적합한 이곳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에서 처럼 민속상설공연장, 골동품점, 화랑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해 나간다면 자연스런 센터형 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IV. 文化觀光으로의 轉換을 위한 提言

1. 藝術行政

예술행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예술행정의 不在는 활발한 공연문화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행정부서, 이를 즐기는 관객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공연 후 잡음을 불러 일으킨다.

예술인과 행정부서 사이에서 잦은 마찰이 생겨나는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화관련예산이 1%도 채 안되는 文化忽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忽待현상은 그동안 예술을 행정으로 인식하지 못해 온 의식의 不在가 자리잡고 있는데 92년 들어서야 市道에 문화예술과가 신설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소홀리 취급받은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市道문화예술과나 문화진흥원 등 문화관련부서가 설치돼 있으나 예술행정을 기획, 立案하기에는 직능상 역부족이며 전문요원의 적재적소 배치는 아직도 遙遠하다.

14) 문예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上揭書, p. 168.

예술행정이 제대로 정착된 외국의 경우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는 根幹아래 예술의 진흥에 따른 정책수립은 물론 일선 극장에 이르기까지 예술행정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하나의 극장에만 해도 운영이사회산하 행정관, 재정감독, 홍보담당관, 극장지배인 등으로 나뉘어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는 자세를 갖고 공연물에 대한 측면지원은 물론 관객의 반응에 까지 관심을 쏟는 등 예술행정이 자연스레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¹⁵⁾

결국 예술행정과 그에 따르는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광관련부서를 비롯 관광행정부서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이 관광자원으로서의 價値를 깨닫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관광행정, 예술행정의 차원에서 도민 모두의 공동관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藝術行政은 一般行政과 달리 특수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따라서 예술행정이 본계도에 오늘 때 문화관광으로의 轉換도 가능해질 수 있다.

2. 文化空間의 擴充

도민의 문화역량 不在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관광이야말로 도민의 외면 속에 곁돌기를 거듭할 것임은 自明한 일인데 문화역량의 尖兵은 문화공간의 확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내에는 지난 88년 개관한 문예회관을 비롯 시민회관, 학생회관 외에도 세종미술관, 동아생명 문화센터 등 여러 문화공간이 있으나 절대 부족한 상태에다 대부분 제주시지역에 편중돼 있다. 제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읍면지역에서조차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나는 유흥업소에 비해 문화공간 신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민들의 정신문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운영에 있어서도 고작 개관 3년을 넘고있는 문예회관은 객석수 및 연습실을 비롯한 부대 시설의 미비 등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난 60년대 지어진 시민회관은 시설의 老朽 등으로 인해 22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시민회관은 각종 집회 및 행사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회관 역시 학생들조차 외면함으로써 문화공간 활용에 따른 무대시설의 보강등 전면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공간의 확충 및 재대로운 활용은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는 바로 도민의 文化力量 伸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3. 各種 研究所의 新設

문화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술행정 및 문화공간의 확충 基盤위에 전략적 차원에서의 制度的 장치의 필요하다.

15) 禮音, 上揭書참조. 예술행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적돼 온 문젯거리이기도 하다. 예술행정의 전문인들이 예술행사를 주관하고 공연장의 운영을 맡아야한다는 인지가래 정부의 문화정책입안자는 물론 문예진흥원, 세종문화회관 등 관련시설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 제도적 장치의 기본이 되는 것이 特性別 연구소의 신설이며 本道의 여건상 가칭 관광문화연구소라든지 민속문화연구소 설치 등이 요구된다. 가령 관광문화연구소의 경우 현재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행태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광객 수용방안, 관광 이벤트의 기획, 계층별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객의 계층별, 연령별, 계절별, 내외국인 分類受容方案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진단되고 관광정책이 제시된다면 濟州관광은 질적인 다양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단체관광객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조사, 연구하고 이에 맞는 관광코스 지정이라든지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흥부부에게는 신흥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는 적절한 문화이벤트로서 휴양지의 이미지를, 외국의 관광객들에게는 고유의 민속문화를 심어줌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認知케하는 二重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획일적인 관광에서 탈피, 수요자의 요구별, 계층별 분산 수용대책과 이에 맞는 이벤트가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될 수 있어야 한다.

민속문화연구소의 경우 비단 관광자원화 방안이 아니더라도 연구소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필요성이 있다. 이곳에서 死藏돼 가고 있는 언어, 민요, 민속 등 전 분야를 세분화해서 연구해 나간다면 민속문화 보존차원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本道에 널려져 있는 민요만 해도 3천여곡이 넘어 민요의 寶庫로도 일컬어지나 정작 우리는 이 재주민요를 쉽게 접할 수 없으며 각종 민속자료의 국내외 반출 또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또 정신문화의 발전은 전통문화에 根幹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수용으로 전통문화는 급격히 사라지고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간 전통문화 斷絶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良質의 관광발전은 바로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달려 있으며 문화발전의 바탕아래 지역사회, 국가발전이 자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의 濟州道 개발은 물론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濟州道開發特別法 등 모든 법 집행 데두리에서 本道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한다는데는 同意하고 있으나 개발방법에 있어서는 自然資源을 활용한다는데 그치고 있을 뿐 人文資源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론이 없다.

그러나 세계의 관광추세는 인문자원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문화전쟁을 치루는 등 더 이상 자연자원은 관광매력물이 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관광추세는 생활여건의 개선에 따라 관광객의 욕구변화와 함께 새로운 附加價値를 원하는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濟州관광패턴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전환이 필요하다.

즉, 세계적 관광추세가 문화관광으로 집약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

적인 관광정책의 변화와 함께 本道 실정에 맞는 각종 이벤트의 기획, 水邊開發, 컨벤션산업의 유치, 문화환경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底邊에는 예술행정을 비롯한 문화공간 확충, 각종 연구소의 신설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踏歩상태의 濟州관광은 관광객의 수요 激減 뿐 아니라 도민의 정신문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연과 문화를 조화롭게 결합한 축제문화를 이끌어 넘으로써 관광욕구에 動機附與를 하고 있는 일본을 비롯 동남아, 그리고 세계 각 국에 이르기까지 관광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戰略的 차원에서의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濟州관광은 도민의 정체성(Identity)을 살리고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방향에서 관광정책이 立案되고 실시되어야 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체 성공의 關鍵은 지방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있으며 濟州道가 觀光立道를 표방하고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는 이상 문화관광의 根據 없이는 '세계적'이라는 용어가 한낱 구호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Summary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Resources and the Conversion to Cultural Tourism

Sun-Moon Lee

Recently, it has continued to be reported that the demand for tourism in Cheju Island is in a stalemate. We can point out several causes for its recent stalemate; however, one of its basic causes arises from tourists craving for new tourism resources with added value according to a rise in a level of life and an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of tourism.

Nowadays the world tourism is showing a tendency to utilize cultural elements as tourism resources as many as possible. Figuratively speaking, we can say that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now conducting a cultural war for tourism market. Under thes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we should try to grope for new tourism policies, and first of all, we must start to change the existing tourism policies in order to break the stalemate in tourism. Until now, the authorities concerned have formed plans for the utilization not of cultural tourism elements but only of the natural resources.

Natural resources alone cannot attract tourists any more. Since the world trend in tourism leans toward cultural tourism, in order to convert the tourism in Cheju Island to the cultural one, we should do the followings on the basis of a new converted tourism policy: the arrangement of various cultural events, the development of water front, the induction of convention industry, and the creation of cul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we should give consideration from policy to the expansion of cultural space,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kinds of institutions, etc.